

# '뮤지엄 이음' 안동 특별전 관람객 1만명

전주대 박물관, 안동 하회세계탈박물관서 전통 문양 기획전 개최... 연계 탐방도 인기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지난 6월 8일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 '뮤지엄 이음'에 선정되어 안동 하회세계탈박물관에서 특별전 '자연에 선조들의 지혜를 담다-일상, 행복, 바람 아로새기다'를 개최했다.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지난 6월 8일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 '뮤지엄 이음'에 선정되어 안동 하회세계탈박물관에서 특별전 '자연에 선조들의 지혜를 담다-일상, 행복, 바람 아로새기다'를 개최했으며, 특별전과 연계한 탐방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했다.

'뮤지엄 이음'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집중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전시와 관광·지역 자원을 연계한 콘텐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며, 우수 전시의 지역 순회 개최와 관광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6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은 전통 문양에 담긴 선조들의 생활문화와 미의식을 소개하는 전시로, 현재까지 약 1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전시에서는 식물문·동물문·문자문·기하학문 등 다양한 전통 문양을 시대별 유물과 함께 소개하며 전통 문화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전시 기간 중에는 전시 해설과 함께 문양을 주제로 한 강연을 운영해 관람객들이 전통 문양의 상징성과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7월 16일까지 이어지는 안동 전시에 이어 9월 1일부터는 전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전시된다.

특별전과 연계한 탐방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6월 24일에 진행된 1차 탐방에는 총 29명이 참여해 안동 하회세계탈박물관·하회마을·병산서원을 방문하고 특별전 연계 강연을 청강했다. 7월 1일에 진행된 2차 탐방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37명이 참여해 동일한 코스로 전통문화와 문양을 현장에서 체험했다.

한편 '뮤지엄 이음'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88개 박물관·미술관의 지역 순회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기관들은 2개 이상의 지역에서 순회전을 개최하며, 이 가운데 50개 기관은 전시 장소를 거점으로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김재훈 기자

## 석정문화관, 인턴십 지원 공모 선정 청년인턴과 소장자료 관리 기반 강화

부안군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석정문화관이 국립한국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2026년 '문화관 인턴십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1백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청년인턴 인건비를 지원해 청년들에게 문화관 운영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석정문화관 소장고에 소장된 도서와 문헌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정리·목록화해 자료 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석정문화관은 신석정 시인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고 지역 문화자원의 보존·전시·교육·확산 기능을 수행하는 공립문화관으로, 상설전시와 기획전시, 창작음악제, 생애사 글쓰기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소장자료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문화관 운영의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군문화재단 정대경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은 청년들에게 문화관 현장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석정문화관의 소장자료 관리체계를 한층 체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확장 기대

원주문화관광재단, 문체부 '꿈의 스튜디오' 예비거점기관 선정

원주문화관광재단(이사장 유희태)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꿈의 예술단 예비거점 지원사업' 꿈의 스튜디오 분야 예비거점기관에 최종 선정됐다.



꿈의 예술단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꿈의 극단·꿈의 무용단·꿈의 스튜디오·꿈의 오케스트라 등 4개 분야에 전국 37개 예비거점기관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꿈의 스튜디오 분야에는 원주문화관광재단을 포함해 전국 10개 기관이 선정됐다.

'꿈의 스튜디오'는 시각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다. 지역 예술가의 작업실, 복합문화지구 누에와 공예오픈스튜디오 등 지역의 창작공간과 예술 자원을 기반으로 아이들이 실제 예술 창작 환경을 경험하고, 스스로 세상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창작의 주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단은 이번 선정으로 국비 1,400만 원을 지원받아 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각예술 분야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모델을 개발·운영

해 향후 정규 거점기관 전환을 위한 기반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정규 거점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5년간 연속지원을 통해 최대 4억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 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원주문화관광재단은 그간 '꿈의 무용단 in 완주'와 '꿈의 극단 완주'를 운영해왔으며, 이번 꿈의 스튜디오 예비거점 선정으로 무용, 연극에 이어 시각예술 분야까지 교육 영역을 확장하게 되면서 완주형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 전북 전통 예술 소리·서양 발레 만남

정읍시, '컬러링 비빔발레' 성료

정읍시가 지역 예술단체와 협력해 기획한 창작 공연 '컬러링( Coloring ) 비빔발레'가 지난 3일 부안예술회관을 거쳐 4일 정읍시 예술회관에서 관객들의 큰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이번 무대는 전북발레시어터가 지역 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처음으로 관객과 만나는 자리였다. 이들은 지역 기반 예술단체로서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무용을 대중적으로 친근하게 풀어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컬러링 비빔발레'는 한국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동기(모티브)로 삼아 다채로운 재료와 색이 어우러지는 과정을 발레 동작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각 색깔이 자닌 의미를 따라가는 이야기 전개(스토리텔링)에 해설을 더해 모든 연령층이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꾸몄다.

특히 전북 지역의 전통 예술인 소리와 서양 무대 예술인 발레를 한데 묶은 신선한 시도가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무대 위에서는 소리와 해설이 극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가고, 색을 활용한 상징물과 매끄러운 장면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공연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여기에 전북 출신인 국립발레단 소속 김명규 독무자(솔리스트)가 협연으로 참여해 무대의 깊이를 더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남원시, 제40회 전국춘향미술대전 시상식 열려

남원시가 주최하고 (사)한국미술협회 남원지부가 주관한 제40회 전국춘향미술대전 시상식이 수상자, 문화예술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일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미술대전에는 공예 124점, 캘리그래피 106점, 서양화 99점, 서예 84점, 한국화 37점, 문인화 36점 등 총 486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대한민국 대표 미술 공모전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시상식에는 이성호 부시장, 한명숙 의장, 도·시의원,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수상자들을 축하했으며, 종합대상에는 이미정

작가의 공예작품 '역동적 파도의 시간'이, 부문 대상은 김희옥 작가의 서양화 '해석된 꽃의 정원 I'과 한광수 작가의 캘리그래피 '누고개'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상 11명, 특별상 16명, 장려상 16명 등 총 40명의 수상자가 영예를 안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창작음악극 '설씨부인전' 17일 무료 공연

순창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인 설씨부인의 삶과 이야기가 현대적인 감각의 창작음악극으로 순창 군민들을 찾아간다.

문화포럼 나너레는 오는 17일 오후 4시 순창군민예술회관에서 창작음악극 '설씨부인전'을 무료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순창의 고유한 역사와 인물을 문화콘텐츠로 재해석해 무대에 올리는 지역 기반 창작공연이다.

순창의 대표 여성 인물인 설씨부인의 삶을 소재로 전통음악과 연기, 노래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따뜻한 웃음과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대중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호남 으뜸의 아름다운 누각

# 광한루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 지정

남원시